

10-13(통권 제 13호)

2010. 06. 09



동북아 REVIEW

제2차 『중미 전략과 경제대화』의 주요내용과 시사점



□ 제2차 『중미 전략과 경제대화』의 주요내용과 시사점

○ (개요) 최근 중국과 미국은 제2차 『중미 전략과 경제대화(Strategic & Economic Dialogue)』를 북경에서 개최

- 중미 양국은 2005년부터 전략대화(전략 위주)를 2006년부터는 전략경제대화(경제 위주)를 개최해왔으며, 2009년 오바마 집권 이후 종전의 대화 형태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략과 경제 분야를 망라한 전면적인 대화체제로 전환
- 『중미 전략과 경제대화』는 지구상 최대 선진국과 최대 발전도상국 간 전략과 경제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소통의 장으로 2009년 7월부터 개최됨(제1차 중미 전략과 경제대화)
- 미국과 중국은 금번 대화에 전례없이 방대한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함
 - 미국은 클린턴 국무장관, 가이트너 재무장관, 버냉키 연준(FRB) 의장, 로크 상무장관을 비롯한 200여명의 정부 관계 인사들로 대표단을 구성함
 - 중국 측에서는 왕치산(王岐山) 부총리가 가이트너를 상대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, 다이빙궈(戴秉國) 국무위원은 클린턴을 상대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대화에 나섬

○ (주요내용) 중미 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전략, 경제 및 현안 이슈에 대한 폭 넓은 합의를 도출

- 경제적 측면 : 중국과 미국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보호무역에 대한 반대를 경제 대화의 핵심 의제로 다룸
- ① (경제구조 개선 가속화) 양국은 경제성장 방식 전환과 경제구조 개선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함
 - 중국은 소비 비중 확대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제 구조의 개선을 약속하고
 - 미국은 국내 저축률 제고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다짐함
- ② (보호무역주의 배격) 중미 쌍방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함으로써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위해 보다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함

- 미국은 무역구제 조사 과정에서 market oriented industry 지위 인정을 요청한 중국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함
 -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의 **조건부 시장경제 지위**¹⁾를 인정하기로 하고 연내에 대 중국 금수(禁輸) 품목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
 - 중국은 외자 기업에 대해 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정부구매에 외국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정할 예정임
 - ③ **(금융분야 협력 강화)** 중미 양국은 금융기관이 실물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
 - 중국은 적격외국기관투자자(QFII :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)²⁾의 주가지수선물 투자를 허용함
 - 미국은 금융산업에 대한 중국계 금융기관(은행, 증권, 펀드관리회사 등)의 투자를 허용하고 기타 국가의 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함
 - ④ **(국제금융시스템 개혁 협력)** 중미 쌍방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함
 - 미국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발전도상 국가들의 발언권 확대와 역할 증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시킴
 - ⑤ **(부서별 대화체제 도입)** 중국과 미국은 경제 대화의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서 간, 협회 조직 간 대화 체제를 폭넓게 운영함
 - 중국 사회보장부와 미국 노동부는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, 사회보험, 취업통계 등에 대해 대화 체제를 유지하기로 함
 - 또한 양국은 자금세탁, 반테러, 위폐(僞幣) 유통 방지 분야에 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과학 기술 관련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
- **전략적 측면** : 중국과 미국은 에너지와 환경 이슈를 전략 분야 핵심 의제로 선정하고 합의사항을 문서화함
- ① **(에너지자원 공동 개발)** 중국 국가에너지국과 미국 국무부는 셰일가스(shale gas) 자원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

1) 시장경제지위(Market Economy Status)는 일국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도를 판단 근거로 하며, 시장경제지위의 획득 여부는 반덤핑관세의 부과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국으로서는 시장경제지위 획득이 절실한 상황임.

2) 중국은 외국 자본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적격외국기관투자자 자격제도를 도입함.

- ② **(핵안전 협력)** 중국 국가핵(核)안전국과 미국 핵규제위원회(Nuclear Regulatory Commission)는 Westinghouse AP1000³⁾ 핵안전 관련 MOU 체결함
 - ③ **(녹색발전 공동 추진)**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미국 국무부는 녹색발전 관련 MOU를 체결하고 공동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함
 - ④ **(통상, 통행, 통관 편의 제공)** 중국 해관총서(海關總署 : 세관)와 미국 국토안전부는 공급망 안전과 통관, 통행의 편의를 위한 MOU를 체결함
 - 그 외에 중국과 미국은 신종 및 재발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MOU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함
- **현안 문제** : 중국과 미국은 전략과 경제 관련 이슈 이외에도 위안화 환율, 출구전략 및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
- ① **(위안화 절상)** 미국은 중국의 환율개혁 자주권을 일정 수준 인정함으로써 극단적인 의견 대립 상황을 피함
 - 대화 개최에 앞서 후진타오 주석은 ‘자주적’, ‘통제가능한’, ‘점진적’으로 대변되는 환율개혁 3대 원칙 천명함으로써 사전에 논란 가능성을 차단함
 -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국의 환율개혁 자주권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존중 의사를 표명함
 - ② **(온건한 출구전략)** 금번 중미전략과 경제대화에서 중국과 미국은 출구전략 관련 내용을 첫 의제로 다룸
 - 중국과 미국은 출구전략의 시기 선택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, 출구전략의 강도에 있어서는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추진함
 - ③ **(인권문제 협의체)** 중미 양국은 인권문제를 내년의 중미 인권대화과 전략과 경제대화과 넘겨 협의를 이어갈 것을 합의함
 - 중국과 미국은 상호 존중의 견지에서 종교 신앙,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 체제를 지속할 것을 약속함

○ **(평가) 제2차 중미 전략과 경제대화를 통해 양국은 대립 국면을 넘어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,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**

3) AP1000은 미국 전력회사인 Westinghouse가 고안한 3세대 핵발전 설비 표준으로, 2007년 중국이 최초로 도입하여 4기의 반응로(reactor)를 건설 중에 있으며,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최종 안전심사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음.

- **양국 간 대립 국면 진정** : 미국이 위안화 절상, 인권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거론을 자제함에 따라 양국 간 대립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임
 - 당분간 위안화 환율에 대한 중미 양국 간 소모적인 논쟁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며, 통상마찰의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임
- **양국 간 협력 기반 마련** : 금번 대화를 통해 중국과 미국은 win-win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 갈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함
 - 중국의 소비 비중 확대, 미국의 저축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합의 달성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임
- **중국 시장개방 가속화** : 금번 대화를 계기로 중국의 소비시장과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중국이 외자기업에 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정부구매 참여를 허용함과 동시에 QFII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큰 진전으로 볼 수 있음
 - 또한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인해 중국의 시장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

○ (시사점) 중미전략과 경제대화에 따른 중국 경제 상황 변화에 대비해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

- 중국의 내수 비중 확대와 정부구매시장 개방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내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영업력 강화와 마케팅 투자 증대가 요구됨
- 중국의 금융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해 국내 금융기관들은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 중국 투자를 확대해야 함
-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과정에서 발언권과 영향력 증대를 위해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해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해야 함

이만용 연구위원(danieli@hri.co.kr, 02-2072-6237)